
제6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9년6월1일(단기4292년) 상오12시07분

식순

1. 개식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식
-

(12시 07분 개식)

○간사장 김형익; 지금부터 제6회 정기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동 국민의례)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때는 바야흐로 신록이 우거진 첫여름을 당했습니다. 금년도 벌써 거반 평년을 거반 지나가게된 이때에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제6회정기회를 개최하게된 이마당에 우리가 금년 지난 반년동안에 얼마나한 우리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또한 우리각자의 해갈바 일을 도리켜 생각할때 내 성심 성의껏 했느냐 혹은 우리들의 의결하는 것이 혹 유감된일이 있었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생각할줄 압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지 출발한지 벌써 만3년이 되는 이때에 그동안 우리 의회사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에 별반 큰 과오가 없었고 또한 우리 의회결의가 잘됐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

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일을 잘 해나가는 중에서도 혹은 어떤때에 조금 잘못 생각하면 과거의 모든업적이 한번 잘못 생각하는 걸로 말미아마 큰 누를 입히고 또한 그성과가 크게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유감된 일로 세상일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6회정기회를 맞는 이때 금번심의에는 여러가지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청원서 진정서 탄원서 조례안등 기타가 산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여러의원동지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한가지 결의라도 나중에 돌아볼때 조금 더 생각 했다면 하는 후회가 없도록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내려온 일을 봐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된 일이 없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또한 잘 처리돼나가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애끼시지 마시고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로써 간단하나마 개회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시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회정기회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단기4289년9월5일에 개최된 이래 제반 어려운 정세하에서 시정창달에 부단하신 노력의 보람이 나타나서 시행정이 날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에 대하여는 경하와 감사의뜻을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단기4291년도결산을 비롯해서 기타 중요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해진 재정원칙아래서 건전한재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기시세수입확보에 더욱 힘을 더내

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4291년도결산심의에 대하여는 격의없는 편달이 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타실정을 심분 이해하시와 시정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2년6월1일

서울특별시장 허정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만세삼창이올시다.

(일동 대한민국만세를 삼창함)

일로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회의는 내일아침 열시부터 이 자리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폐식)
